

대구 주보

부활 제4주일(생명 주일, 성소 주일) 2017. 5. 7.(가해) 제2050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요한 10,3,9) 목자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양떼들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겨 드립니다.

—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제1독서 사도 2,14-36-41

제2독서 1베르 2,20-25

복 음 요한 10,1-10.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김병수 루카 신부 | 교구 성소담당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생각하고 다양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물론 성소 주일이라고 하면 특별히 교회직무의 부르심을 받은 사제, 수도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요즘 수도원, 수녀원, 신학교를 지원하는 예비 성소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교구 신학교 지원자가 한자리 수에 그쳤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빨리 현실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걱정은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자격이 부족한 사람으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올해 전국 성소국장 모임에 참가해서 보니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먼저 신부님, 수녀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구사제 사목지침에, “성소 증진에서 사제들은 다른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령께서 특별한 성소의 은사들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을 계속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제들은 인생의 진로 선택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결정적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과 기꺼이 함께 지내야 한다. 성소 증진 노력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초대와 완전하고도 일관된 신앙생활의 초대로 시작된다. 다양한 봉사와 직무와 은사들을 지니고 있는 공동체는 성소 증진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가정과 학교, 부모와 교사들은 인생 진로의 영역에서 특별

히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므로, 자기 앞에 있는 소명의 모든 가능성 가운데서 성숙한 선택을 하도록 사제들은 그들에게 도전을 제기하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밝힙니다.

물론 성소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속화 되어가는 오늘날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의 ‘성소 사목’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신앙 위에서, 신앙으로 유지되는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과감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면 성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각자 신분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의 열정과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소 지원자들이 격감하는 위기를 맞아 미래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 시기에 먼저 우리의 관심을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회복하고 가정, 교구, 신학교, 성소국, 본당의 성소후원회에서 미래 교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선교를 위한 **성령**의 이끄심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그리스도인 성소의 두 가지 측면인 “자신에서 벗어나”라는 부르심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관하여 생각해왔습니다. 올해 성소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선교적 차원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교를 위한 노력은 그리스도인 삶에 장식품으로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그 자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며 그분 사랑을 보여 주는 증거자로 이 세상에 파견됩니다.

우리가 나약함을 체험하고 좌절을 느낀다 해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무능하다는 생각에 짓눌리거나 비관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맞갖은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특별히 봉헌 생활에 부름 받은 이와 사제들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라고 기꺼이 응답한 이들입니다.

복음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힘과 용기를 주니까? 선교에 힘을 실어 주는 복음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의 답을 복음서의 세 가지 장면에서 찾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파견되신 장면에서, 선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에 함께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말씀 전례와 빵을 쪼개는 전례에 앞서는 참된 길의 전례를 발견합니다. 이 길의 전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씨앗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씨앗은 작고,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여도 하느님의 지치시지 않는 활동으로 조용히 계속해서 자랍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적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기본이 되는 성령의 활동과 지속적인 관상 기도를 통해 성소와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촉진해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무엇보다도 성체 조배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돈독히 하여 성장하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과 이러한 깊은 우정을 맺기를 권유하며 무엇보다도 사제직과 봉헌 생활에 대한 성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성모님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응답하며 기쁘게 길을 떠나 온 세상에 하느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나를 따르라”

죽음의 때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명의 문화 건설을 위해 제정된 생명 주일이 일곱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명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며 '생명의 복음'을 세상 안에서 삶으로 선포하는 백성입니다. 생명 주일이 생명의 참 뜻을 되새기고,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마치면서 발표한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에서 인간의 생명이 “죽음의 때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의 제자로서 특별한 소명이 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지금까지 맺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며,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피할 수 없지만,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순간인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죽음을 의미 있게 맞이하는 사람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명과도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그 시행에 앞서 고지한 이 법률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비롯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모든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라는 문서를 통해 미리 자신의 의향을 밝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상 한국 가톨릭교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는 환자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함께 추후 진료 계획을 상의하는 가운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우리 교회에서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주교회의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을 돕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생명’에 대한 신앙이 드러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생명 주일을 맞이하여 “죽음이 가까울 때, 그리고 죽는 순간에 생명을 기리고 찬양”(성 요한 바오로 2세)하기 위해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선사받은 생명의 참 뜻을 세상 안에서 드러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생명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017년 5월 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성령의 은총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견진성사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사도 8,17)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새 신자들에게 안수하여 세례의 은총을 완성시키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사도 8,15-17; 19,5-6 참조) 이처럼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푸는 예식이 ‘견진성사’입니다

세례성사를 출생, 탄생의 성사라고 한다면 견진성사는 성숙 또는 성장의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이자 교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는 이어서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견진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된다는 것으로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말과 행실로 신앙을 증거하며 자신이 받은 신앙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본래 주교가 직접 베풀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권을 위임받은 사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성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교회에서는 만 12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은 후 적어도 1~2년이 지난 다음에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완성하는 성사인 만큼 견진성사에도 대부모가 필요한데, 세례성사 때의 대부모를 견진성사의 대부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견진성사는 주교의 안수(按手)와 도유(塗

油, 기름 바름)로 이루어집니다. 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전해주는 상징적 행위이며, 기름 바름은 기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름 바름으로 세례성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호가 새겨집니다.

성령께서는 견진성사를 받는 신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내려주시는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해 주는 은혜인 지혜(슬기)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인 통찰(깨달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인 의견(일깨움),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을 증거할 힘을 북돋아 주는 은혜인 용기(굳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앙의 도리를 깊이 이해하는 은혜인 지식(앎), 하나님을 자녀다운 효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은혜인 효경(반듯),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됨을 두려워하는 은혜인 경외(두려워함)(이사 11,2-3 참조)의 일곱 가지 은혜(성령칠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와 함께 성령의 열매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 5,22-23)의 아홉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는 매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교구장 동정



5.4(목) _ 재중국 사제 피정 파견미사(10시, 한티피정의집)

보좌주교 동정



5.5(금) _ 세나투스 성모의 밤(20시, 성모당)

5.6(토) _ 파티마병원 건진성사(10시)

5.7(일) _ 성소 주일 미사(11시, 대신학원 대성당)

교구 및 기관 행사

- 5. 10(수) _ 노년을 위한 토빗 피정(11일까지, 한티피정의집)
- 5. 11(목) _ 36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3주차(9시 30분, 포항 지곡성당)
- 5. 12(금) _ 소공동체위원회 월례회(11시, 교구청 별관 3회합실)
- 5. 14(일) _ 2017년 여름신앙학교 연수(9시, 가톨릭교육원 다동 대강당)

노년을 위한 토빗 피정 안내

장소 : 한티피정의집 / 대상 : 65세 이상 남녀

신청비 : 60,000원(1박 2일), 100,000원(2박 3일) / 문의 : 교구 노인사목담당 053)250-3077

차수	피정 날짜	신청 마감
제 2차	5월 10 - 11일 (수, 목)	5월 8일(월요일)
제 3차	7월 5 - 6일 (수, 목)	6월 25일(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제 4차	9월 28 - 29일 (목, 금)	9월 15일(고통의 성모마리아 기념일)
제 5차	10월 18 - 19일 (수, 목)	10월 11일(연중 제 27주간 수요일)
제 6차	11월 22 - 23일 (수, 목)	11월 12일(연중 제 32주일)
제 7차	12월 20 - 22일 (수, 목, 금)	12월 10일(대림 제2주일)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사제, 수도 성소를 키워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한 주간동안 묵주기도를 하겠습니다.”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8일(월) 10:3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8일(월) 11: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5월 8일(월) 11:00 황성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5월 8일(월) 19:00 4대리구청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8일(월) 11:00 신평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5월 9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8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5월 10일(수) 19:00 용강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8일(월) 11:00 계산성당	-	-

대리구 소식

3대리구 성모의 밤

일시: 5.30(화) 19:30

장소: 월성성당 내 성모당

대상: 3대리구 내 전신자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5.13(토) 16:00

장소: 예수회센터 이냐시오카페

주제: 예수회 평수사의 삶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5.13(토), 14(일) 14:00

장소: 부산 본원

대상: 선교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문의: 개인연락 가능,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5월 한티 피정

기간: 5.20(토) 16:00~21(일) 13:00

주제: 그대 어디로 가는가(순례음악)

지도: 홍경혜, 홍승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5.16~19 / 5.21~23 / 5.26~29

6.3~5 / 6.8~10 / 6.13~16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기간: 5.14~17(추자도) / 5.20~22

5.28~30 / 6.3~5 / 6.12~15(추자도)

신청: (064)756-6009 / (02)773-1463

교육 | 모집 | 기타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5.12(금) 17:30~14(일)

4박 5일: 5.15(월) 14:00~19(금)

8박 9일: 6.12(월) 14:00~20(화)

에니어그램: 5.12(금) 15:00~14(일)

문의: (031)946-2337~8

29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일: 6.24(토), 7.22(토), 7.29(토)

설명회: 5.20(2차)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50차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4~8.14 영국·아일랜드

대·일반: 6.25~8.6 아일랜드

세계 학생들과 연수, 다양한 경험

설명회: 5.13(토) 14:00, 대명성당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40차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7.15(토)~23(일) 8박 9일

주최: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010)5607-2046

<http://www.terrasanta.kr>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 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척척병원
WISER MAN Hospital - Spine & Joint

정형외과전문의 **곽은석(더모테오)**
신경외과전문의 **신철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을대동 1208-2 (칠곡시장 맞은편)

낙지장어

낙지철판복을 / 연포탕
산아나고석쇠구이 / 장어매운탕
40인 단체방 어린이놀이방 완비

T.053)941-7008 정창훈(안드레아)
신암동 대구공고 네거리

아토피 · 예민피부 특화병원
www.dalsungskin.com
달성피부과·성형외과

아토피 체질치료/아토피 피부관리/레이저
민감성피부 성형수술/비만클리닉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민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효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전인병원
병원장 손기철 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문의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완수술 후·완 재활도 전인병원

일반 검진 일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지정 병원

진료 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과, 한방내과, 침과

대구연세안과

·백내장수술 ·아이디자인 라식
·노안 수술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학교교수 원장 **박종원** (소시모)

☎053)626-8881~5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전 강 권 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아우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행사 | 모임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산내 치유 피정: 5.16(화)~17(수)

시니어 피정: 5.23(화)~24(수)

장소: 효령하늘집

문의: (054)382-0091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규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초청연주회

일시: 5.20(토) 17:00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

출연: 4G양상블(남성 피아노 4중주단)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1

대구 성령 축제

일시: 5.27(토) 9:00~18: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남산동)

강사: 이창진(아폴레오) 신부

2박 3일 성령세미나: 6.9(금)~11(일)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교육 | 모집

제38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기간: 5.15(월)~19(금) 14:00~17:00

장소: 교구 별관 대화합실 / 마감: 5.9(화)

대상: 예비신자 교리반 및 소공동체 봉사자

수강료: 3만원(함께하는 여정 교재 포함)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2017 대가대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기간: 4.24(월)~5.12(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3(일반) / 850-3505~6

(교육) / 660-5512~3(특수)

http://www.cu.ac.kr(모집요강 참조)

5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5.20(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행복의 심리학 / 강사: 성한기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제13차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

기간: 5.24(수)~25(목) 9: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데레사홀

마감: 5.17(수) / 2만원(교재, 중식)

대구은행 508-12-426680-6 호스피스

문의: 650-4557 / 650-2557

프란치스카눔 문인화(서예, 사군자) 모집

시간: 화 19:00, 수 10:30

강사: 진동길(마리오) 수사 신부

준비물: 문방사우(선착순)

문의: 프란치스카눔, (010)9100-4114

더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351차 ME주말: 6.2(금) 19:00~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행복한 영화 읽기

시간: 5.18 매주 목 13:30~17:00

장소: 동성로 바오로팔서원

주제: 소통과 공감

회비: 10주 12만원(문자로 신청)

문의: 권마리아 수녀, (010)9064-501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채용 | 안내

꽃동네 사랑의연수원 청소년지도사 채용

소재지: 충북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자격: 청소년지도에 관심있는 30세 미만

문의: (043)879-0406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두리(크리스티나), 홍미경,

신성만(모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발아플랜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신랑각시 결혼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1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오로)
피부 질환 아토피 | 알레르기 | 시아미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온빌딩 3층 (구, 달성군청)
1호선 성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010-2624-0322
경산조폐공사 정문 앞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테리어 필름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131만원 보조금 전문상담
류(다나엘) / 청능사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에페 6, 7)
말씀을 기억합니다.
품격순례 해외여행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053-424-8525